

## 율법과 선지자

마태복음 7:7-12

이스라엘의 구전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이방 사람이 랍비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개종해서 유대인이 되고 싶습니다." 랍비는 유대인이 되고 싶어 하는 그에게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해야 하는 지를 가르쳤습니다. 이방 사람은 그것을 다 지키고 랍비를 다시 찾아 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야 온전한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율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랍비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네 자신이 싫어하는 일은 남에게도 하게 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의 전체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율법의 해석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반응과 응답이 있을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더욱 더 생각하고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접하라"라는 말씀으로 교훈하십니다. 흔히 신학자들은 이 7:12 말씀을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즉, 신약성경의 모든 진리, 말씀 가운데 가장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뜻이지요. "대접하라" 남을 대접하는 것, 이 한가지로 다른 사람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의 대원칙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너무 단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얼마나 복잡한데, 얽히고설킨 실타래처럼 어렵고 미묘한 것이 인간들 간의 관계요, 인간 사회의 모습인데 '대접하라'는 너무도 단순한 이 한마디의 말씀으로 이것들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대접하는 그것으로 인간 사회의 모든 문제와 과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러나 우리는 대접하라 는 이 한마디의 말씀을 통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모든 관계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대원칙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찾아가는 가운데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대접"이라는 것이 단지 먹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대접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보통 음식을 만들어서 이웃을 불러다 놓고 대접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그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따뜻한 이웃의 정은 먹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먹는 것을 두고 대화하는 것과 그냥 대화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실생활에서 종종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만들어 이웃을 불러다가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분명 이웃에 대한 배려요 따뜻한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그렇게 음식을 나누는 것도 가끔이지 매일 매일 일상화 될 수는 없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가리키고 있는 대접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음식을 만들어 접대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이 말씀은 서로 간에 지극히 타산적으로, 계산적으로 똑같은 양만큼의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선행을 주고받으라는 이기주의적인 의미를 가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자기가 타인에게 기대하는 만큼 타인도 자기에게 기대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은 서로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앞세우지 말고, 겸손하게 먼저 사랑을 행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바라는 대로 내가 먼저 남에게 그렇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일터에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에게, 또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것을 원하고 계십니까?

먼저,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정도와 방법이 각자 조금씩 다를 뿐, 남녀노소 누구라도 그 마음속에는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에게 원하는 것, 남에게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을 먼저 인정해 주는 것이 남을 대접하는 올바른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사랑의 한 방법입니다. 내가 실력이 좋아서, 내가 잘나서, 내가 남보다 특별한 것을 가졌기에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보다 인정해 주는 사람이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사람에게에는 누구나 다 용납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에게에는 누구나 다 허물과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에 약점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배경에, 어떤 사람은 성격에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밖에 학력, 물질, 인간관계 등 사람이란 누구나 다 여러 면에서 여러 가지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 완벽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은 그러한 약점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다른 사람 앞에서 드러나기를 바라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을 속속들이 알게 되기를 바라는 분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단점과 실수, 잘못에 대해서 용납 받기를/너그러이 받아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용납 받기를 바란다면 다른 사람도 용납 해 주어야 합니다. 즉 내가 먼저 용납하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올바르게 대접하는 지혜로운 방법인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남에게 먼저 행하는 용기가 있을 때, 내가 용납을 받고 싶은 것처럼 내가 먼저 남을 용납할 때, 바로 거기서 평화가 이루어지며 화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에베소서 4:23 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됨의 힘은 화평입니다. 그런데 이 화평을 이루게 하는 요소에 대해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용납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케 하기 위하여 자기를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용납해 주셨기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서로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용납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용납하지 못했기에 상한 것이고, 용납하지 못했기에 구부러지고 비틀어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홀로 살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화평함이 있어야 하고, 연합과 하나 됨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의 허물과 단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장점을 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이기에 더욱 더 용납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교회 공동체 안에 용납하는 모습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 용납할 때 우리가 섬기는, 주의 몸 된 교회 공동체 안에 진정한 연합이, 하나 됨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대접하는 삶은 곧 섬기는 삶입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높은 자리에서 섬김을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있는 자리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교회 안에서 맡은 직분 가운데, 직장에서 가지고 있는 직위로서, 모두들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섬김을 받으려면 먼저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섬길 때 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행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위에 군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의 선생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기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먼저 섬기셨습니다. 섬기심으로써 섬김을 받으셨고, 섬기심으로 귀한 열매를 거두셨습니다. 남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섬기는 모든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진정한 평안과 하나 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남을 대접하는 데 있어서, 남을 섬기는 데 있어서 기도하는 심정/마음을 가지고 남을 대접하며 섬기라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자 기도하듯이 남을 용서하라는 말씀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자 기도하는 것처럼 남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것이 있어서 구하고 기도하듯이 남에게 무엇인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남을 대접하고 섬기는 데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있어서 예수님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